가족의 힘으로 … 이경훈 한국인 첫 PGA 투어 타이틀 방어

AT&T 바이런 넬슨 2년 연속 우승
4라운드 63타 … 26언더파로 역전

이경훈(31)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910만 달러)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이경훈은 16일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묶어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25언더파 263타의 조던 스피스(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163만8000달러(약 21억원)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이 대회에서 PGA 투어 80번째 출전 만에 통산 첫 승의 감격을 누린 이경훈은 대회 2연패와 투어 2승째를 수확했다.

한국 선수가 PGA 투어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것은 이경훈이 최초다.

최경주가 2005년 10월 크라이슬러 클래식, 2006년 10월 크라이슬러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지만 두 대회는 서로 다른 대회로 열렸다. 또 PGA 투어에서 2승 이상 거둔 한국 선수는 최경주(8승), 김시우(3승), 양용은, 배상문, 임성재(이상 2승)에 이어 이경훈이 여섯 번째다.

특히 이 AT&T 바이런 넬슨은 최근 3개 대회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인연을 이어갔다.

2019년에 강성훈(35)이 우승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2021년과 올해 이경훈이 왕좌를 지켰다.

1944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2연패 이상을 달성한 선수는 1958년 샘 스니드, 1971년 잭 니클라우스와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연속 우승한 톰 왓슨(이상 미국) 등 '골프 레전드'들에 이어 이경훈까지 4명이 전부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6위였던 이경훈은 이날 6번 홀(파4)까지 버디 4개를 몰아치고 단숨에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2번 홀(파4)에서 15m 긴 버디 퍼트를 넣고 기분 좋게 출발한 이경훈은 6번 홀(파4) 버디로 선두에 올랐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12번 홀(파5)이었다. 선두에 1타 뒤져 있던 이경훈은 242야드를 남기고 4번 아이언으로 친 샷을 홀 1.5m로 보내 이글을 잡고 단독 1위가 됐다. 기세가 오른 이경훈은 13번 홀(파4)에서도 약 4.5m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 선두를 이어갔다.

이경훈이 1타 차로 앞서 있던 경기 막판에 흐름이 요동쳤다.

17번 홀(파3)에서 이경훈은 티샷이 그린 주위 벙커 턱에 놓여 타수를 잃을 위기를 맞았다. 벙커에 발을 딛고 시도한 두 번째 샷은 홀 약 3.5m 거리에 놓여 만만치 않은 파 퍼트를 남겼지만 이경훈은 이 퍼트를 넣고 1타 차 리드를 유지했다.

고비를 넘긴 이경훈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팁인 버디에 성공해 2타 차로 달아나며, 역시 같은 홀 버디로 추격해온 스피스를 1타 차로 따돌렸다.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이경훈은 19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전망도 밝게 했다. 이경훈은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에 다섯 번 출전했으나 모두 컷 탈락했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상, 상금, 평균 타수 3관왕 김주형(20)은 18언더파 270타로 공동 1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지난해 … 임신한 아내와 함께 이경훈이 지난해 5월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우승한 뒤 임신한 아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는 … 아내·딸과 함께 이경훈이 16일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우승한 뒤 아내, 딸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휩쓸어 …"난 가장 행복한 사람"

손흥민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
'토트넘 올해의 선수' 모두 수상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정규리그에서만 21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한 손흥민이 소속팀 토트넘의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토트넘은 15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이 구단 '올해의 선수'를 싹쓸이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는 물론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했다.

손흥민은 2018-2019시즌, 2019-2020시즌에 이어 세 번째로 이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만 21골 7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으로 토트넘이 4위 경쟁을 하는 데 앞장섰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22골)와 득점왕을 다투는 그는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이번 시즌 EPL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EPL 홈 경기를 마치고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발표된 손흥민은 "이 경기장에서 뛸 수 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오늘 경기에 승리해서 기쁘고 이 상을 받아 행복하다. 난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뤄졌다"며 "이곳에서 토트넘의 일원으로 이런 멋진 팬들을 위해 뛰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트넘 '올해의 골'에는 스테번 베르흐베인이 1월 레스터 시티와의 리그 17라운드 순연 경기 후반 추가 시간 터뜨린 극적인 역전 결승골이 선정됐다. 당시 베르흐베인은 토트넘이 1-2로 끌려다니던 후반 50분 동점 골을 넣었고, 2분 뒤엔 경기를 뒤집는 골까지 기록했다. /연합뉴스

KIA, 사직 원정 …주말엔 NC와 홈경기

흔들렸던 선발진 순위싸움의 중심으로

타이거즈 전망대

흔들렸던 선발진이 순위 싸움의 중심을 잡는다.

KIA 타이거즈가 승수 쌓기를 위해 사직 원정에 나선다.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NC 다이노스를 상대한다.

기대감으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난 지난 한주였다.

KIA는 KT와의 주중 홈 3연전에서 임기영과 배제성의 '명품 투수전' 끝에 터진 소크라테스의 끝내기 안타로 6연승 질주에 성공했다.

11일 경기에서 선발 이의리의 난조로 7연승에는 실패했지만, 부진을 만회한 '캡틴' 김선빈의 결승타로 12일 승리를 가져오면서 위닝시리즈를 장식했다.

상승세 속 팬들의 화끈한 응원을 등에 업고 나선 잠실 원정도 시작은 좋았다.

양현종의 헤드샷 퇴장 악재에도 뜨거운 화력으로 10-1 대승을 거두면서 개막시리즈에서 2패를 안겨준 LG에 설욕전을 펼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필승조의 뒷심 싸움에서 밀린 KIA는 홈런 3방을 날린 이재원의 활약에 막혀 두 번째 만남에서도 1승 2패로 고개를 숙였다.

선발과 홈런이 새로운 한 주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행진을 했던 선발진이 지난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키움을 상대로 8이닝 완벽투를 선보였던 이의리가 지난 11일 KT와의 등판에서는 3이닝 8실점(4자책점)으로 부진했다.

13일 LG를 상대로 최연소 150승에 도전했던 양현종은 3회 박해민과의 승부에서 헤드샷을 기록하면서 퇴장당했다. 10일 경기에 이어 15일에도 마운드에 올랐던 임기영도 4회를 끝으로 일찍 등판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3승이 기록됐지만 선발승은 추가되지 않았다. 흔들린 선발진, 홈런도 눈에 띄었다.

헤드샷 변수로 3회 도중 교체된 양현종을 제외한 선발진이 모두 피홈런을 기록했다.

이의리는 1회부터 KT 박병호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고전했고, 한승혁은 12일 1-1로 맞선 6회 역시 박병호에게 스리런을 맞았다.

14일과 15일 선발로 나선 션 놀린과 임기영은 LG 이재원에게 연달아 홈런을 맞았다.

KBO리그 타자들의 타격 상승세 속, 새로운 스트라이크존 적응도 끝나면서 최근 '홈런'이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팀 홈런 최하위(66개)였던 KIA도 올 시즌 벌써 24개의 홈런을 날리는 등 홈런에 울고 웃고 있다.

타석에서는 '최고참' 최형우의 혼신을 다한 기록 행진이 이어진다.

최형우는 LG와의 15일 경기에서 두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를 기록, KBO리그 통산 10번째 2100안타 주인공이 됐다. 4번째 3600루타에는 단 타 하나만 남겨놨다.

또 최형우는 지난 7일 한화전에서 통산 두 번째 1400타점을 넘어선 뒤 이승엽의 최다 타점(1498타점) 고지를 넘기 위해 달리고 있다.

어느새 불혹의 나이, 예리함은 떨어졌지만 몸을 날리는 슬라이딩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을 깨우고 있다.

양현종은 헤드샷 충격을 딛고 150승 고지에 도전한다. 양현종이 다음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최연소 150승'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치치파스 꺾고 시즌 첫 우승

ATP 투어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2022시즌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들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1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541만5410 유로)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4위·그리스)를 2-0(6-0 7-6〈7-5〉)으로 물리쳤다.

올해 앞서 출전한 4개 대회에서 4월 세르비아오픈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던 조코비치는 5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83만6355 유로(약 11억1000만원)다.

전날 준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10위·노르웨이)를 꺾고 투어 통산 5번째로 1000승 고지에 오른 조코비치는 이날 우승으로는 마스터스 1000시리즈 통산 38회 우승 기록을 달성했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1년에 9차례 열리는 대회로 4대 메이저 대회 다음 등급에 해당한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이 바로 조코비치의 38회다.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이 36회로 그다음이다.

로저 페더러(46위·스위스)는 28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부문 3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모든 원정경기 응원단 파견한다

'블랙 타이거즈 응원단'
안무와 율동으로 팬들 즐겁게

KIA 타이거즈가 '원정 응원단'을 파견해 10번 타자들과 함께 달린다.

KIA가 17~19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경기에 이어 모든 원정 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한다.

서한국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4명으로 구성된 '블랙 타이거즈 응원단'은 신나는 안무와 율동으로 팬들을 즐겁게 하고, 뜨거운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더해줄 예정이다.

서한국 응원단장은 "수도권에 이어 전국 모든 경기장에서 팬 여러분과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대된다"면서 "힘찬 목소리와 몸짓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응원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